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내적 불안과 자유에 대한
회화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선영

내적불안과 자유에 대한 회화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유근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선영

인 준 서

김선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현대사회는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보다 윤택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불안과 내적존재 상실의 원인이 되어 편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환경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본인은 사회와 인간의 정신적 환경의 괴리감에서 느끼는 현대인들의 불안을 주제로 2013년 석사청구진을 진행하였고 그 작품들을 토대로 인간에게 자유란 어떤 것이며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된 선택과 책임에 대한 불안을 본 논문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현대인들은 물질문명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기 때문에 정작 자신에 대해 돌아보지 않았고 모든 가치의 근원을 자신이 아닌 사회에 두고 살고 있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존재의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인식이 작품을 이루는 질문으로 연결되었다. 더 나아가 본인 작업과 삶에 있어 자신이 지금 원하는 것, 혹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본인은 존재의 불확실함과 불안의 기저에 존재하는 자유라는 개념에 주목해 그 자유가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거치는 선택과 책임이라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불안해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에 있어 자유와 불안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고자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불안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자아의 부재, 존재의 지각을 통한 불안임을 전제하며 20세기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얻어진 자유로부터 야기된 불안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한다. 또한 그 자유와 불안이

라는 감정이 예술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지를 살피며 표현주의, 리얼리즘 우리나라의 민중미술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역사적 결과와 사실을 통한 분석으로 현재 자유로운 삶 속에서 형성된 본인의 존재적 불안이 회화 작품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고 그 표현된 것에 대해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불안의 심리를 예술에 녹여낸 작품들을 짚어보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모색하고자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자유와 불안의 개념과 논의	3
1) 현대사회에서의 자유	3
2) 불안에 대한 연구	10
2. 불안의 표현	14
1) 존재 안에 내재된 불안	15
2) 외부적 상황으로 인한 불안	21
① 리얼리즘 회화에 나타난 불안의 표현	21
② 민중미술 회화에 나타난 불안의 표현	28
3. 작품 분석	30
1) 경험을 통한 사회의 반영	32
2) 표정과 자세를 통한 인물표현	37
III. 결론	42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이름없는 너에게, 50x90cm, 종이에 채색, 2013	33
[작품 2] 얼굴 없는 너에게, 종이에 채색, 112X145cm, 2013	33
[작품 3] 서른 살의 봄, 장지에 채색, 130X162cm, 2013	36
[작품 4] 평화, 종이에 채색, 60x72cm, 2013	36
[작품 5] 나의 자리, 종이에 채색, 162X130cm, 2013	38
[작품 6] 말없는 대화, 종이에 채색, 89.5X169cm, 2013	40
[작품 7] 깊이 얹은 물, 종이에 채색, 130X162cm, 2013	40

도 판 목 차

[도판 1] 프란시스코 고야,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1799	16
[도판 2] 프란시스코 고야,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 1823	16
[도판 3] 폴 고갱,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1898	18
[도판 4] 뭉크, <절규>, 1893	19
[도판 5] 케테 콜비츠, <궁핍>,1872	20
[도판 6] 천경자, <내가 죽은 뒤>,1952	20
[도판 7] 구스타프 쿠르베, <화가의 작업실>, 1855	25
[도판 8] 구스타프 쿠르베, <돌개는 사람들>, 1849	25
[도판 9] 오노에 도미에, <가르강튀아>, 1831	26
[도판 10] 오노에 도미에, <삼등열차>, 1864	27
[도판 11] 장 프랑수아 밀레 <이삭줍기>, 1857	27
[도판 12] 김호석, <역사의 행렬>, 1993	30
[도판 13] 뭉크, <흐느끼는 누드>, 1914	39
[도판 14] 케테 콜비츠, <죽은 아이를 안은 여인>, 1903	39

I.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사회는 ‘개인’과 ‘자유’의 개념이 대두되던 20세기와 정서적으로 많은 것이 닮아있다. 물론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른 새로운 개념과 의식의 생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사회 초기와 비슷한 양상의 갈등 요소들이 산재해있다. 또한 사회가 세계화, 개인화되며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고 그리고 성장하느라 미처 돌보지 못한 개인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누구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개인의 의식, 감정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행복 추구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모두가 사회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또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고민으로 선택할 자유, 결정할 자유의 획득이 전제된 고민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본인 또한 사회와 나 사이에서의 괴리감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현대사회에 대두된 ‘자유로부터 시작된 불안’의 개념에 대해 논해보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안이 예술을 이끌어낸다는 학자들의 언급을 통해 현대인의 주된 심리적 상태는 ‘불안’이며 인간의 역사는 대부분 불안을 거부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의 역사라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산업사회에 이르러 개인은 자유를 획득하였지만 중세봉건시대의 여파가 남아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회피했던 사회적 현실을 통해 21세기의 자유와 불안을 조명해보며 당대의 예술가들의 상황을 분석하겠다. 또한 예술가들이 가지는

강렬하고도 절실한 실존에의 추구는 예술 발원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현대미술에 표상된 ‘불안’을 조명하는 것은 불안이 어떠한 심리적 흐름의 과정을 통해 예술에 투영되어 승화를 이루어 가는지를 밝히겠다. 이를 통해 불안한 현재를 사는 현대인들이 예술을 통해 불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심리적·이론적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 목적이다.

본 연구자의 작품 또한 본인이 겪은 불안한 상황의 근원을 자유라는 개념이 가져온 선택과 책임의 결과로 보고 그 선택과 책임을 기피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감정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충분한 설명을 위해 본론 1장에서는 작업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가 논의되어진 과정을 통해 자유의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고 인간의 존재적 고민이 시작되어 자유로부터 불안이 야기될 수 있었던 19세기 서구 산업사회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불안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론 2장에서는 예술에 나타난 불안이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는지를 내적불안이 표현된 예술작품과 외적요인의 불안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특히 내적불안을 형상화한 표현주의의 화가와 외적 요인의 불안을 표현한 리얼리즘 계열의 작가와 민중미술 작가들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론 3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 배경을 추적하여 그 불안이 표현되는 과정과 형상화된 작품을 짚어보면서 본인의 작품 속에 내재된 자유와 불안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자유와 불안의 개념과 논의

1) 자유에 대한 논의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닌다. 그야말로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생활이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의 제약이 사라졌다고 해서 ‘현대인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자유는 생겼지만, 그 자유로부터 선택과 책임이라는 명제가 뒤따라오게 되었고 선택과 책임으로 인한 불안으로 인해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닌 또 다른 유형의 속박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근원적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이러한 존재의 양상인 자유, 소외, 불안, 선택, 양심 등을 주로 논했던 이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실존주의철학자라고 칭한다. 실존주의철학은 중세에서 산업사회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상으로 산업의 속도와 인간감정변화 속도의 괴리(乖離)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가 가져온 불안이라는 명제를 실존주의(實存主義)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살펴 보며 더 나아가 실존주의로부터 파생(派生)된 예술의 양식과 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이 자유가 산업사회라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 피도록 하겠다.

자유라는 말은 라틴어 Libertas 혹은 게르만어의 Freihaals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는 노예적인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 즉, 파

거의 필연(必然)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서 성립하였다. 이 개념은 원래 일정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특성을 가리킨 것이었다. 한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인 ‘자유인’은 노예와 달리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였다. 그리고 자유인은 이방인들과 달리 다른 사람의 폭력에서 비롯한 상처와 억압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정치의 세계에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참여하는 사람으로 일컬었다.¹⁾

위와 같이 근대 사회에서는 자유인을 노예와 구분 짓는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고대사회에서 자유는 왕과 신에게만 허락된 개념으로 일반 사람들이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명제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자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논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플라톤(Plato Platon, BC 427~347)²⁾은 다음과 같이 신화적 형식으로 자유를 선언했다.

운명의 신이 그대들을 추첨하여 맞출 것이 아니라 그대들 자신이 스스로 운명을 선택하라. 첫 번째로 제비를 뽑은 자가 먼저 운명을 선택하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선택한 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다. 덕은 아무에게도 지배되지 않는다. 그것을 존중하거나 소홀히 하는 데 따라서 너희들은 각각 덕을 많이 소유하거나 혹은 적게 소유하게 될 것이다. 책임은 선택하는 자에게 있고 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³⁾

이와 같이 플라톤은 선택의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자유를 인정하였다. 그러

1) 오토프리트 회페, 『윤리학사전』, 임흥빈 역, 예경출판사, 1998, p. 414

2) 플라톤(Plato Platon, BC 427~347)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서 받은 결정적인 영향하에 <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대성했다. 이데아론을 근본으로 하는 그의 이상주의 철학은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주의, 현실주의 철학과 함께 서양철학 사상사의 모든 전통을 이분하고, 막대한 영향과 자극을 주고 있다.(종교학대사전)

3) 민동근, 『윤리학』, 제문제 역, 형설출판사, 1982, pp192~193

나 과도한 자유의 추구는 자유의 종말이라고 하여 중용(中庸)의 자유를 가장 이상적인 자유로 보았다. 또한 선택의 의미 또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신에 의해 선택‘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국가에 대립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국가와 공존하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였다.

고대의 또 다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⁴⁾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었다. 그는 무엇이 선인가를 아는 것, 즉 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문제 자체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행위의 자발적인 면과 비자발적인 면을 밝히고 도덕적인 책임을 자발적인 행위에 있으며 무지를 피하는 일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일부 비자발적인 행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게 목적은 바라는 것이고, 목적에의 수단은 선택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목적에의 수단에 관한 우리들의 행위는 선택적인 것이며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언급하였다.

중세에서는 어거스틴(Agustin)과 아퀴나스(Thomas Aquinas,1225~1274)⁵⁾가 자유의 문제를 깊이 논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인간은 이성적이라는 사실의 결과라고 보았다. 본능과는 달리 이성은 개별적인 선택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 선택은 궁극목적(행복)에 이르는 수단에 관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어떠한 개별적인 대상

4)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이다. 플라톤이 초감각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존중한 것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가까운, 감각되는 자연물을 존중하고 이를 지배하는 원인들의 인식을 구하는 현실주의 입장을 취하였다.(두산백과)

5) 아퀴나스(Thomas Aquinas,1225~1274)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신학자. 그는 경험적 방법과 신학적 사변을 양립시켰다. 이와 같이 독자적인 종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창조의 가르침에 뿌리박은 존재의 형이상학이었다. 그는 신 중심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상대적 자율을 확립하기도 했다 (두산백과)

들도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유의지는 인간이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그래서 자유는 의지에 속하지 않고 지성에 속해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자유의지는 인간이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경우 그것은 어떤 종류의 판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 가능한 대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심사숙고(深思熟考)를 목적으로 하는 선택결정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세의 종교적 이율배반(二律背反)이 근세로 접어들면서 윤리적 이율배반으로 대체된다. 종교적 이율배반에서는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기규정을 대립시키는데 비해서 윤리적 이율배반은 자연적 필연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립시킨다. 이 과정에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1632~1677)⁶⁾가 있다. 스피노자는 자유를 ‘오로지 자체의 본성에 따라서 존재하며 그 자체만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자유롭다고 부른다’ 라고 하며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의 내적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결정론적 자유론을 설파했다. 또한 ‘인식의 자유’를 주장했는데 자신이 인식함으로써 결정되어지는 방식의 자유였다. 이것을 신과의 관계에 적용시켜 인식하는 모든 사물이 곧 신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이 곧 세계다’⁷⁾ 라는 명제를 통해 인식과 자유, 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 논했다. 이는 모두 중세의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상가들이 자유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중세이전의 자유의 개념은 신으로부터의 자유로 한정되고 18세기 산

6)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네덜란드의 철학자. 데카르트 철학에서 결정적 영향을 받았다.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범신론(汎神論)의 사상을 역설하면서도 유물론자·무신론자였다. 그의 신이란 그리스도교적인 인격의 신이 아니고, 신은 즉 자연이었기 때문이다 (두산백과)

7) 질 들뢰즈, 『스피노자의 철학』, 박가순 역, 2001, 민음사, p.38

업혁명에 이르러서야 자유의 개념은 개인의 자유로 확장되었다. 노예해방을 통해 인류가 얻게 된 행동의 자유, 정치 혁명으로 이뤄낸 투표권의 행사로 인한 자유,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선택의 자유. 자유의 획득은 인간으로써의 당연한 권리를 찾은 것이지만 종래에 없던 사고의 확장으로 인해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다. 실존주의는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타파해 나갈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나타난 철학이다.⁸⁾ 궁극적으로 자유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상을 살피며 중세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존주의철학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0세기 전반기는 이전 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던 정치·사회·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변화의 흐름이 축적되어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⁹⁾기에 접어들어 등장한 일련의 변화의 징후들은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시대적 특징 또한 그 변화가 축적과 극대화되어 나타났다.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치투쟁과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화적 흐름의 변화 등이 시민들의 의식에도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산업혁명으로 기계공업이 발전되고 대량생산이 실현되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세기의 이러한 변화는 20세기에 들어 자연과학 및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세분화, 다양화되었고 사회는 전에 없이 복잡해졌다. 정치·사회·경제 등의 분야는 물론 철학과 인문사회과학의 발달, 심리학의 등장 등으로 학문의 범위도 확장되었

8) 이상현, 『지성사로 본 세계사』, 집문당, 1998, pp. 600~601

9) 18세기후반은 영국산업혁명, 근대시민혁명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사회전반에 변혁의 움직임이 가득했던 시대였다. (두산백과)

는데,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전반기의 시대적 특징을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진보로 가능했던 서구유럽의 근대화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팽창경쟁으로 이어진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민족·계급 등의 이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¹⁰⁾ 자기의 이익을 위한 충돌은 점차 잦아지고 거칠어졌으며, 이경쟁의 끝이 바로 세계대전의 발발(勃發)이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¹¹⁾이 유럽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극도의 자국 중심주의 및 민족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1939-1945)¹²⁾은 대공황(1929)¹³⁾이라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맞아 이를 타개하고자 일어난 전체주의 국가들의 도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전쟁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신념과 의미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예컨대 인간은 이성을 신뢰하는 합리주의적 주체이며 다른 인간을 수단이나 목적으로 삼는 도덕적 존재라는 신념들이 붕괴된다. 또한 서구유럽의 정신

10) 이상현, 『지성사로 본 세계사』 집문당, 1998, p.600

11) 1차세계대전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끝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의 협상국(연합국)과, 독일·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 양 진영의 중심이 되어 싸운 전쟁. (두산백과)

12) 2차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 등지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 규모의 전쟁이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이다. (두산백과)

13) 세계대공황(世界大恐慌, 1929) 1929년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되어 자본주의 국가 전체에 파급된 세계적인 경제공황. 33년 말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다. 자본주의 전체의 공업생산력 약 44%, 무역 약 65%가 저하했고 기업파산 수십만 건, 천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발생시켰다. 공업 생산뿐 아니라 농업과 금융 부문의 타격도 매우 커서, 농산물의 가격폭락, 각국의 금본위제 정지 사태가 잇따라 일어났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뉴딜정책을 도입했고, 영국·프랑스는 식민지 시장에 의존하는 불럭경제권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들 선진 자본주의국과는 달리 식민지도 거의 없고 국내시장도 작은 일본·독일·이탈리아 등은 군국주의로의 길을 걸었다. 즉, 군수물자 생산에 주력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식민지를 확보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이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파시즘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했다. 식민지를 둘러싸고 경제불럭권과 군국주의권으로 나누어진 자본주의국가들의 대립은 얼마 후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근현대사사전)

적 가치를 지배해왔던 기독교적 가치관 역시 무너지게 되었다. 기독교적 전통에 익숙해있던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행동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할지 모른 채 불안과 절망 속에서 헤매게 되었고 결국 신에 의해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세계의 모든 존재는 신에 의해 버려진 채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할 필연적인 이유 없이 그냥 거기에 던져져 있을 뿐이었다. 인간은 자의와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하지도 만들지도 않은 세계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런 상태가 그들의 신앙심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회의적이고 반성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¹⁴⁾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인류는 불안과 공포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인간 이성에 대한 불신, 불안, 인간 행동의 기준이라고 여겼던 절대적 가치의 붕괴,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의 부재를 전제(前提)하고 인간에 대한 내면적 성찰을 하게 된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¹⁵⁾의 기독교적 가치 체계의 부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개인 내면의 자아를 강조한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¹⁶⁾,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¹⁷⁾ 등의 실존주의철학이 나타났다. 또한 실존

14) 변광배, 『존재와무: 자유를 위한 실존적 탐색』, 살림출판사, 2005, pp88~89

15)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 독일의 철학자. 생(生)철학의 대표자로 실존주의의 선구자, 또 파시즘의 사상적 선구자로 말해지기도 한다. 그는 종래의 합리적 철학, 기독교 윤리 등 모든 종래의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철저한 니힐리즘(nihilism)을 주장하여 생(生)의 영겁회귀(永劫回歸) 속에서 모든 생의 무가치를 주장하고, 선악의 피안에 서서 '약자의 도덕'에 대하여 '강자의 도덕'을 가지고 '초인'(超人)에 의해서 현실의 생을 긍정하고 살아야 함을 주장했다.(두산백과)

16)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 프랑스의 작가·사상가. 철학논문 《존재와 무》(1943)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전개한 존재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시대 사조를 대표한다. (두산백과)

주의철학의 자아중심 사고를 자아와 역사의 관계 인식으로 확대한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¹⁸⁾와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¹⁹⁾ 등으로 대표되는 생의 철학이 나타나 자유를 획득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2) 불안에 대한 연구

불안은 흔히 초조, 두려움, 공포 등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정신 분석학회에서 발간한 『정신분석용어사전』에서는 불안을

보통 기본적으로 위협과 위협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지 만 어떤 큰 위협이 닥칠 것 같은 생각에 압도당하는 무력감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게 몰두하며 걱정하는 현상을 수반한다.’²⁰⁾

-
- 17)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현대 독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 나치스 지배 기간 동안에는 이에 협력하였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신학, 철학을 수학. 마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교수를 역임. 후설의 현상학으로부터 출발하여 기초적 존재론을 이룩하였으며,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존재론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존재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 즉 현존재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고, 다른 것과 관계 있는 '관심'으로서의 존재이며, 이 관심이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에 직면하여 유한적인 시간성 속에 있다는 것이 명확히 되어 본래의 자기를 깨닫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존'인 인간 존재는 '무로 돌아가는 존재'이며, 그 존재 방식은 '불안'이라는 것이며, 이 불안에 의해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전체로서 나타나게 되는 결국 무매개(無媒介)로 전체로서 초월하게 되며, 일상성으로부터 탈각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간의 존재 방식이 그가 말하는 '세계-내-존재'이며, 인간 존재의 근본적 성격을 이룬다 (두산백과)
- 18)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 독일의 관념론자이며 '생철학'의 대표자의 한 사람. 베를린 대학 교수. 과학을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으로 나누고, 철학을 '모든 과학의 과학'이라 규정하였고, 정신과학의 방법론을 탐구했다. 이때 철학에서 초월적인 대상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 그 자체의 분석에 자신의 방법론을 한정했다. 그리고 지적 활동만이 아니라 의지나 감정도 포함한 '자아'(自我)의 생의 직접 체험인 활동에 근거하는 정신적 소산의 외적인 설명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의 '이해'(理解) 또는 '추체험'(追體驗)을 지향했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문학과 철학사를 저작했다.(두산백과)
- 19)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 프랑스의 관념론 철학자로 생철학, 직관주의의 대표자. 모든 사물의 근원으로서 '순수지속'을 주장하여, 과학적 인식에 의한 물질·시간·운동은 이 지속의 안에 보여지는 여러 형태들이며 지속의 고정화라고 한다. (두산백과)

고 하였다. 현대 심리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경증, 초조, 긴장과 같은 느낌으로 복잡한 감정적 반응이다. 또한 ‘불안’은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인간의 필연적 사항이며 인간의 발달과 적응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하는 중심 문제이다.

그래서인지 불안은 자유와 함께 여러 사상가들에게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다루어져왔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²¹⁾는 ‘절대적 근원에 대한 갈망과 합리성의 추구로 인하여 불안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신의 죽음을 말한 니체는 ‘불안은 광기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하이데거는 불안을 무(無)의 포착으로 보았다. 즉 무에 의해 사로잡힐 때 불안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다가 20세기 전반기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실존주의²²⁾에서 비롯된 ‘실존주의적 불안’이 등장했다.

실존주의는 사변철학(思辨哲學)²³⁾의 보편적 체계속의 하나의 부속물로 안주하고 있던 한 개인을 해체시켰을 때 그 개인은 단독자로 실존하며 그 특징은 불안이라고 생각했다. 실존주의자들은 2차 대전을 겪고 난후 그들이 처해있는 현실적 세계와 단독으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해 언급하고는 했다. 실존주의 철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키에르케고르(Søren Aabye Kierkegaard, 1813~1855)²⁴⁾는 ‘실존의 근원 속에 감추어진 불안’의 개념에서

20) 미국정신분석학회, 『정신분석 용어사전』, 이재훈 외 옮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195

21) 데카르트 (René Descartes, 1596~1650) 프랑스의 수학자·철학자(1596~1650).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이다. 그는 모든 것을 회의한 다음, 이처럼 회의하고 있는 자기 존재는 명석하고 분명한 진리라고 보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자신의 철학적 기초로 삼았다. 저서에 《방법 서설》, 《성찰(省察)》, 《철학 원리》 따위가 있다. (두산백과)

22) 20세기 전반에 합리주의와 실증주의사상에 기반에 대한 반등으로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사상 (두산백과)

23) 사변철학(思辨哲學) 경험 철학에 대하여, 사변을 인식의 근거나 방법으로 하는 철학 (두산백과)

24) 키에르케고르(Søren Aabye Kierkegaard) 덴마크의 철학자. 그는 대중의 비주성(非主性)과 위선적 신앙을 엄하게 비판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단독자(單獨者)로서의 신(神)을 탐구하는 종교적 실존의 존재방식을 《죽음에 이르는 병》 등의 저작을 통해 추구하였다. (두산백과)

사상을 발전시켜나갔다. 그리하여 그는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전개시켜 나갔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불안, 가능성의 무지에서 오는 불안이 질적 비약(飛躍)을 일으켜 인간을 타락케 한다고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담의 타락원인을 불안에서 찾았고 동시에 타락의 극복도 불안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 불안은 질적 비약을 일으켜 인간을 죄로 이끌어감과 동시에 신을 통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변증법적 양의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과오 앞에서의 인간의 불안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자유앞에서의 불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이데거에게 불안은 인간존재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불안은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경험을 사유할 수 있는 자유와 세계와의 관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은 슬픔이나 쾌락 등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과는 달리 인간 실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의 존재론적 특징이며 인간 실존의 근거 내지 중심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르트르는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에 힘입어 ‘무 앞에서의 불안’이라는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론적 위엄성을 가지는데 그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은 그의 본질이 없음에, 다시 말해 자유에 있다고 생각했다. 개별인간은 그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유에서 도피하여 자유를 떠맡지 않으려는 거부 속에 살고 있다. 그가 말하는 불안은 ‘나 자신에 대한 불안’이며 나 자신인 자는 자유와 의식으로서 나의 가능성이며, 이 의식은 무에 의해 그의 본질로부터 차단되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안은 오직 그때그때의 결단 속에 그리고 내가 고독하게 나에게로 되던저짐으로써만 대두된다.²⁵⁾ 또한 사르트르는 (자유)-(선택)-(결과)-(책임)으로 이어지는 관계 안

25) F. 짐머만, 『실존철학』, 이기상 역, 서광사, 1987, p.142

에서 인간은 과연 진정 자유로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유가 초래한 불안을 증명했다.

인간이 만일 지금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자신을 만들어 가는 존재라면, 그리고 자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온 인류의 책임을 떠맡게 된다면, 만일 선형적으로 주어진 가치나 도덕이 없이, 받침점이나 길잡이도 없이 혼자서, 그러면서도 모두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 어떻게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토록 완전한 책임 앞에서 어떻게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겠는가?²⁶⁾

그는 자유의 기본은 선택과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그 선택의 결과는 개인 혼자만이 아닌 전 인류를 아우른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불안을 초래한다고 말한다.²⁷⁾

이처럼 불안은 자유에 대한 반성적 의식이다. 이런 사르트르의 입장은 본인이 불안과 자유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각자의 상황에서 선택은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지지만 현대인이 불안해하는 상황은 그 선택의 결과가 가져오는 파장이 자신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과 자신의 결정에 영향받는 사람까지 생각하다 보니 더욱 소극적인 자세로 '선택'을 하게 되며 결과와 책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에 대한 공포에 예술가들이 대응한 방법을 살펴보겠다.

26) 사르트르가 프랑스 기관지 악시옹(Revue Action, 1944, 12)지와 인터뷰

27)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역, 문예출판사, 2005, pp.21~22

2. 불안의 표현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은 오직 자신만이 질 수 있고 또 져야만 한다. “인간의 공동생활에는 책임 없는 자유도, 자유 없는 책임도 생각할 수 없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자유 없는 책임은 책임이 아니라 종속이다.”²⁸⁾ 그러나 사르트르가 말하는 책임은 이러한 사회적인 것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그것은 인간이 실존(實存)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인간은 결정된 본질이 없기에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하며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의 책임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자기존재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깨닫는 순간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인간의 불안은 스스로의 자유의 책임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의 모습은 예술에서 표현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제지식을 가지고 예술에 나타났던 불안의 모습을 내적 원인, 즉 존재 내면에 자리한 불안의 모습과 사회상황이라는 외적인 원인이 불안을 초래하는 모습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불안이란 감정은 복합적인 감정으로 단순히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나누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체로 표현주의의 경우 내면적 감정을 표현하다보니 불안의 주된 대상이 자신에 이른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의 대다수는 자화상의 형상을 띄고 있다. 그에 비해 리얼리즘과 민중미술의 경우에는 사회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작가들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그들이 보는 사회는 자신의 불안을 넘어 ‘우리’의 불안으로 인식된다. 그림의 표현 또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상황적 표현이 대다수인 것을 볼

28)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변광배 역, 살림, 2005, p.56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불안의 표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존재안의 내재된 불안 표현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다. 특히 자유라는 개념은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인간 존재에 대한 논의가 실존주의와 맞물려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예술 또한 실존과 불안에 대해 표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표현주의’ 화풍이라고 부른다.

표현주의 이전에도 불안에 대한 표현은 있어왔다. 하지만 표현주의 이전의 회화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은 그동안 혼돈과 힘든 시대적 배경, 상황, 혹은 개인의 현실적인 산물로 그쳤다. 또한 도피와 이상세계로의 구축(構築)이라는 영감을 제시하는 시대상황이라는 큰 원인안의 여러 작용 중의 하나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 대두되지 못하던 때에 인간의 감정이라는 사사로운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던 것이다. 따라서 시대상과 이상세계에 가려 작은 감정으로 숨어 비롯된 표현은 소극적 감정 표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야(Francisco José de Goya y Lucientes, 1746~1828)²⁹⁾는 시대상황의 고발과 자신의 내적감정 두가지요소를 지닌 불안을 표현했다. 그는 궁정화가로 초상화 제작을 주로 하였지만 사고로 청각을 잃고 내면적 불안을 겪으면서 그가 속해있던 시대의 화려함과 환락(歡樂), 덧없음을 그렸다. 특히 1799년 출판한 판화집을 통해 그런 면모를 드러냈다. 에칭과 애퀴틴트를

29) 고야(Francisco José de Goya y Lucientes, 1746~1828) 에스파냐의 화가. 후기 로코코시대에는 왕조 풍의 화려함과 환락의 덧없음을 다룬 작품이 많다. 고야의 작품은 에스파냐의 독특한 니힐리즘에 깊이 뿌리박혀있고 악마적 분위기에 싸인 것처럼 보이며 전환 동기는 중병을 앓은 체험과 나폴레옹군 의 에스파냐 침입으로 일어난 민족의식이었다 (두산백과)



[도판 1] 고야,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1797-1799



[도판 2] 고야,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1823

실험적으로 혼합한 80점의 동판화로 이루어진 판화집에는 고야 스스로 ‘인간의 과오와 악덕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도판 1] 이러한 사실은 그가 몸담고 있는 현실로부터 역사적인 거리감을 확보하고 스스로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는 ‘검은 그림’ 시리즈를 통해 시대와 자신과의 괴리감을 표출했다. 성공가도를 걷던 궁중화가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그가 살던 시기와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특히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도판2]에서 보여지는 광기어린 모습은 내면의 불안, 갈등이 극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그는 이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시각으로 전통을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고타를 비롯한 표현주의 화가들은 예술을 통해 새로운 정신적인 실체를 찾고자하여 작가의 내면표출을 강조하고 작가의 주관적 표현을 추구하는 감정표현을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불안 표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주관적인 입장으로 옮겨가는 표현주의 작가들에게서 극대화되어진다. 표현주의 화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탐구를 예술표현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들은 눈에 보여 인식할 수 있는 배경에서 탈피하여 곧 인간의 본질적 감정을 솔직하고 대범하게 표현하였다. 예술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창작의 근원을 정신성으로 파악하며 작품에 그들의 감정을 담아 강렬하고 자극적인 상황을 묘사하여 불안, 고통, 우울 등의 정서를 전달하였다.

그런 표현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화가로 고갱(Paul Gauguin, 1848~1903)³⁰⁾을 들 수 있다. 고갱은 뒤늦게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수집가로 미술을 접해 나중에는 스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윤택했던 생활은 그림을 그리면서 어려워졌고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타히티로 향해 그곳에서 사회와는 단절된 생활을 한 채 오직 자신의 내면 집중하는 작업생활을 보여준다. 그는 그가 유작으로 남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도판 3]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이 낳은 근원적 탐구였다. 본인의 작업에 근간(根幹)도 인간존재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는데 ‘존재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는 불안’이라는 주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근본적인 주제로 작업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제목 자체가

30) 고갱(Paul Gauguin, 1848~1903) 프랑스 후기인상파 화가이다. 문명세계에 대한 혐오감으로 남태평양의 타히티섬으로 떠났고 원주민의 건강한 인간성과 열대의 밝고 강렬한 색채가 그의 예술을 완성시켰다. 그의 상징성과 내면성, 그리고 비(非)자연주의적 경향은 20세기 회화가 출현하는 데 근원적인 역할을 했다 (두산백과)



[도판 3] 폴 고크,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1898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상황뿐 아니라 삶이라는 공간 속에서 계속 질문하게 되는 근원적인 질문이다. 고크는 자신의 근원을 찾는 물음에서 시작되어 자신의 현재를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태생적인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갖는 감정은 미래에 대한 물음이자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이었다. 고크의 이런 모습은 후대의 화가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그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외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감정에 집중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표현주의의 대표화가인 뭉크(Edvard Munch, 1863~1944)³¹⁾는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과 불안의 감정을 격렬한 색과 왜곡된 선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주관성의 실현을 바탕으로 인물과 풍경을 묘사하였으며 주제 형상을 그의 의도에 맞게 변형시키곤 했다. 그는 어렸을 적 자신이 겪었던 가족의 죽음

31) 뭉크(Edvard Munch, 1863~1944)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 유년 시절 경험한 질병과 광기, 죽음의 형상들을 왜곡된 형태와 격렬한 색채에 담아 표현했다. 독일 표현주의 미술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했으며, '생의 프리즈: 삶, 사랑, 죽음에 관한 시'라고 부른 일련의 작품을 통해 생의 비밀을 탐사 하듯 인간 내면의 심리와 존재자로서의 고독과 불안, 공포의 감정을 깊게 파고들었다. (두산백과)

으로 인해 내면에 잔존하고 있는 감정들을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모티프들 내면의 감정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그림에 표현하였다. 특히 <절규>[도판4]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은 갑작스런 정신적 동요가 우리의 모든 감각적 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표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과장되어 있으며 둥그렇게 뜬 눈, 흘쭉한 뺨은 죽은 사람의 얼굴을 연상시킨다. 또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절규에



[도판 4] 몽크 <절규>, 1893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이것은 내면의 불안, 자신만이 책임 질수 있는 불안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양상은 현대 화가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감정표현은 현대에 와서 당연한 결과로 이해된다.

독일의 미술가 케테 콜비츠(Kathe Kollwitz, 1867~1945) 또한 자신의 아이를 잃은 감정이 작업전반에 나타난다. 전쟁을 통해 아이를 잃은 그녀는 아이를 잃은 부모의 불안한 심정을 전쟁이라는 사회상에 담아 표현했다. 그녀의 슬픔과 불안의 기반은 자식을 잃음에 있었지만 그 상황을 만든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이 함께 작용한 것이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과 학대받는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고 그들의 주장을 앞장서서 옹호하려 했다. <궁핍>[도판5]이라는 작품은 실업과 봉기가 잦았던 시기에 술레지엔 방직공들이 당면한 비참한 처지를 다룬 희곡에서 영감을 얻어 1890년대에 그린 일화의 삽화들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그린 이 장면이 그



[도판 5] 콜비츠, <궁핍>,1893



[도판 6] 천경자, <내가 죽은 뒤>, 1952

희곡에는 나오지 않으나 연작의 통렬함을 더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작가 천경자 또한 내면의 불안을 가시화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녀는 이혼, 동생의 죽음 등이 그녀의 작품에서 삶과 죽음, 불안과 욕망을 표현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내가 죽은 뒤>[도판6]라는 작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해골과 함께하는 자연 등을 통해 생명성, 삶을 향한 의지와 내면의 갈등을 형상화 했다.

이처럼 표현주의 화가들은 아름다움의 의미를 'beauty'에 한정짓지 않고 'human'의 개념으로 끌어 들었다. 당시 사람들은 표현주의

미술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자연의 형태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결과가 아름다움과는 멀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표현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감정의 직설적인 표현을 작품에 녹여내었다. 이에 몽크는 고뇌의 외침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인생의 즐거운 면만을 보려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라고 말했다. 표현주의자

들은 인간의 고통, 가난, 폭력, 걱정 등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느꼈기에 미술에서 조화나 아름다움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직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2) 외부적 상황으로 인한 불안 표현

① 리얼리즘에 나타난 불안의 표현

표현주의는 인간 내면의 불안을 표현한 미술이지만 불안의 원인을 인간의 내면이 아닌 사회상에서 찾아 표현했던 이들을 리얼리즘, 사실주의 화가들이라고 부른다.

실재와 실물을 가리키는 라틴어 ‘realis’라는 어원에서 시작된 리얼리즘은 사실주의, 현실주의, 실재론 등의 의미로 철학, 정치, 사회, 예술적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 개념이며 자연이나 현실생활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꾸밈없이 묘사하려는 경향으로 시대적인 흐름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19세기는 산업발전이라는 물질적 토대, 즉 물질문명과 과학의 발달이라는 토대위에 성장한 자본주의가 그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모순은 19세기 새로운 사회구조 및 실질적 계급분화를 심화시켜왔다. 근대적 사유의 광범위한 유포로 다수의 대중이 계몽되면서 자유주의의 시대가 도래(到來)했고, 이들은 과거의 신민, 노예, 농노에서 군중, 시민, 인민, 민중 등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근대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자에 대하여 종교적이며 신분적인 색채가 빠져나간 대중의 관념이 통용됨으로써 바야흐로 자유와 평등을 향한 시대적인 변화가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³²⁾

32) 홍석기, 『인상주의-모더니티의 정치학』, 생각의 나무, 2010. p. 141.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삶의 일상성과는 거리가 먼 낭만주의 전통과 형이상학적 관념론과 같은 비현실적인 사조가 유럽 전역에 퍼져있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사실주의라고도 불리우는 리얼리즘 문화가 생겨났다. 근대사회를 구성하는 대중은 '민중'과 그에 대립하는 '가진 계층'의 두 갈래의 부류로 나뉘어진다. 마르크스적 시각에서 근대의 대중은 다수의 노동자계급과 소수의 부르주아계급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계급적으로 노동자와 부르주아는 대립(對立)과 공존(共存)의 관계 속에 있다. 계급적 대립관계인 이 한 쌍의 대중은 근대적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상이한 상황과 각각의 계급적 환경을 토대로 서로 다른 정신세계와 판이한 가치체계에 의거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병존해왔다.³³⁾ 19세기 근대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부르주아와 민중계급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미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19세기전반기 내내 발전해 온 산업혁명의 결과 경제권을 장악한 산업자본가는 생산수단과 이윤을 독점하고 정치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여 사회적 실력자가 되었다. 반면에 노동자로 대표되는 민중계급은 물질문명의 발전에 따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고, 어느새 다수자 위에 군림한 부르주아의 경제적 착취구조 속에서 대단히 열악하고 고단한 삶을 이어오고 있었다.³⁴⁾

1830년 이후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노동자 계급은 비로소 그들의 눈을 뜨게 되었고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하는데 있어서 결코 다른 계급에 기댈 수 없다는 점을 자각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와의 경계의 계급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전개되었다. 프롤레타리아적 운동과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식은 산업혁명의 승리와 대규모적인 기계공장의 도입과 도시 공장의

33) 홍석기, 『인상주의-모더니티의 정치학』, 생각의 나무, 2010. p. 161.

34) 번즈, E. M.& 러너, R. , 『서양문명의 역사 III』, 손세호 역, 소나무, 1996, p.898

확고한 설립 및 1830년 이후의 사회적 투쟁과 더불어 비로소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³⁵⁾ 즉 본격적 의미에서의 리얼리즘은 서구 시민계급이 그들의 고유한 예술과 문학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봉건적 예술에 대한 대안으로써 관철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리얼리즘 양식이 급속히 변화하는 인간사회와 인간의 개체적 성격, 그 행위와 신념, 체험과 감정을 유연하고 포괄적이며 다면적으로, 예술적, 미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대의 예술적 논의와 결합하여 다각도로 변화한 리얼리즘은 다른 예술 사조와는 달리 특정한 한 시대에 국한된 사조가 아니라 보편적인 예술이념이자 현실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때로는 예술작품과 그것이 표현해낸 사물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창작원리상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사회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삼았던 리얼리즘은 현실자체의 서술적 묘사 그 형식보다는 오히려 서술이 만들어내는 진술에 더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리얼리스트에게서 중요한 것은 지각이나 지각의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지각된 내용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의 문제, 곧 표현의 문제와 직결되었다. 참된 리얼리티는 우리가 매일 보는 사물과 즉각적인 감각너머에 있다. 예술의 표현에는 일상적인 리얼리티의 단순한 외양과 환영으로부터 더 높은 리얼리티와 보다 진실된 실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헤겔의 주장 속에서 실재의 단순한 환영이나 반사경에 불과한 리얼리티가 아닌 보다 높고 영속적인 본질인 진실 된 실재의 표현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³⁶⁾

35) A.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 엄무웅·반성완 역, 창작과 비평사, 1999, p.24.

36) 반응기, 『리얼리즘 문학과 다큐멘터리 사진 연구』, 경북대출판부, 1998, p2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³⁷⁾는 고단한 민중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프랑스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였다. 그가 살고 있던 19세기 중 후반의 프랑스는 자본주의 국가에로의 변신을 위한 격동의 시대였다. 쿠르베는 그런 격동의 시대를 어렵사리 살고 있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그려내었다. 천사를 그려보라는 요청에 “천사를 보지 못했으므로 나는 천사를 그릴수가 없다”라고 했을 만큼 사물의 사실적 표현을 중시했고 쿠르베는 화가인 동시에 혁명가로서 그림에 철저히 현재 상황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현실을 반영한 그림의 시초는 <화가의 아틀리에>[도판7]라는 그림으로 전시를 거부당한 그림을 모아서 전시를 열었을 때였다. 이런 행동은 정식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서민층을 대표하는 혁명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그의 그림 <돌 깨는 사람>[도판8]은 그가 사실주의의 선두주자로 하층 노동자들의 삶을 미화하거나 과장됨 없이 그린 대표적 그림이다. 남루한 티셔츠를 입고 자신의 힘에 버거운 돌을 나르는 소년과 역시 허름한 복장으로 한쪽 무릎을 잡초더미에 꿇은 채 돌을 깨고 있는 노인을 그린 이 그림은 항상 아름다운 것만 그림에 담으려고 했던 시대를 철저히 비난하는 그림이었다.

37)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 프랑스 화가. 19세기 사실주의의 대표 화가. 오르낭(Ormans)에서 출생. 부농의 아들로 처음에 신학, 이어서 법률을 배우고, 1842년 이후는 회화에 전심, 거의 혼자서 수업한 후 1844년 살롱(Salon)에 입선했다. 1849년 네덜란드에 여행하여 렘브란트 등의 플랑드르(Flandre) 파의 영향을 받고 리얼리즘을 표방, 수법(手法)만이 아니라, 화재(畫材)를 시민의 일상 생활 및 주위의 사물에서 구하여 그렸다. 개인전을 개최(1856·1867), 《오르낭의 오후》·《오르낭의 매장(1850)》·《나무 자르는 인부》·《화실(1855)》·《숫사슴의 격투(1861)》 등을 발표하여 살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반감을 샀으나, 그의 세심하고도 추한 것은 추한 그대로 표현하는 태도는 인상파 화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후 주로 동물화·풍경화를 그리고, 1870~71년 보불(普佛) 전쟁 시는 파리 코뮌(Paris Commune)에 참가하여 신정부의 미술 장관이 되었으나 패배 후 추방되었다. 1873년 스위스에 망명, 1877년 제네바에서 사망. 그의 리얼리즘은 근대 회화의 '회화성' 확립의 초석이 되었다. (인명사전, 2002.1.10, 민중서관)



[도판 7] 구스타프 쿠르베, <화가의 작업실>, 1855



[도판 8] 구스타프 쿠르베, <돌깨는 사람들>, 1850



[도판 9] 오노레 도미에, <가르강튀아>, 1831

도미에(Honoré Daumier, 1808~1879)³⁸⁾ 역시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리얼리스트였다. 특히 도미에는 풍자화로 이름을 날렸는데 풍자화를 그리던 그에게 미술이란 아무리 곱고러워도 진실 그대로 비춰야하는 거울이차 시대의 증거로의 의미를 지녔다. 그는 스스로 시대의 기록자를 자처하며 모

두가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을 때에도 현실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1831년 한 주간지에 실린 도미에의 석판화 <가르강튀아>[도판 9]는 큰 화제가 되었다. 그림 속에서 왕은 소시민과 노동자계층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배를 불리는 탐욕스러운 거인 가르강튀아로 묘사되었다. 도미에는 이 사건을 통해 감옥에 갇히고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하였고 그의 그림은 대부분 문맹이었던 서민들의 뇌리에 강력히 각인되었고 저항과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삼등열차>[도판 10]는 시대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가난한 이들로 가득 찬 열차의 무거운 분위기와 그들의 침묵이 자아내는 우울함을 표현하였다. 이 말없는 삼등열차 안은 단적으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

38) 오노레 도미에(Honoré Daumier, 1808~1879)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이며 판화가. 19세기 프랑스 정치와 부르주아 계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서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로 당대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4,000여점에 이르는 석판화를 비롯한 방대한 작품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생생한 증언이다.



[도판 10] 도미에, <삼등열차>, 1864



[도판 11] 밀레, <이삭줍기>, 1857

게 한다. 그려진 대상은 서민이지만 그림의 실질적 주제는 이들의 소외를 조장하는 사회인 것이다. 반면 밀레의 사실주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의 대표작<이삭줍기>[도판 11]에서 그가 그리는 농부(혹은 하층민)가 왜 어려운 처지가 됐는지, 그런 조건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문제와 관련이 없는지 밀레는 세심하게 묻지 않는다. 밀레의 주인공들은 결코 외부를 탓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인내심과 의지, 신앙으로 극복하려한다. 철저한 가난이나 노동의 힘겨움은 오히려 이런 농부들의 태도를 위대하게 보이게 할뿐이다. 갈등이 심했던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이런 가난과 고통의 솔직한 표현과 그 안에 숨은 숨겨진 휴머니즘의 표현마저 시비거리가 되곤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애를 감동적으로 표현한 밀레의 그림도 의혹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리얼리즘이란 사조는 예술가의 체험을 기초로 한 사회적 현실생활에 대한 인식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정한 리얼리즘적 창작방법이란 주체의 올바른 내면적 선택에 의해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존재의 차원이 아닌 의미의 차원으로 재현하여 작품을 창조하는데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②민중미술에 나타난 불안의 표현

민중미술은 1980년대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생산되고 자극된 불안이 발현된 것으로 당시 미술운동사상 가장 많은 이론가와 미술가들이 참여해 사회비판적인 리얼리즘미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민중미술은 대개 사회비판, 현실개혁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 이해되어왔지만 본인은 이 민중미술의 ‘불안’이라는 지점에 방점을 찍어 이해하고자한다. 민중미

술은 불안한 사회 상황에서 터져 나온 민중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해 표출된 미술사조였다. 하지만 이 바탕에는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 개인이라는 존재가 겪게 되는 불안이 깔려있다. 안정된 직장과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불안을 느끼는 개인이라는 존재가 어지러운 정치 상황과 연이어 이어지는 데모와 혁명 속에서 느꼈을 불안은 어떤 상황보다 컸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가장 편안해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도 불안함에 가득차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안에 노출된 사람들의 작품의 기반은 당시의 사회상을 ‘불안’의 감정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1980년대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미술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민중미술의 등장은 정치적 모순을 타개하고자 했던 민주화운동세력에 영향받은 것으로 민주화를 갈망하는 변혁세력(變革勢力)과 정치적 입장을 일정부분 공유했다. 민중미술은 1979년 결성된 ‘현실과 발언’, ‘광주자유미술협의회’를 계기로 움직임이 본격화된 이후 1980년대를 대표하는 현실 참여적 미술운동으로 성장해 나갔다.

이중 김호석은 미술 변방에 있었던 동양화를 통해 사회상을 전달했다. 특히 문인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동양화를 통해 양반의 그림이 아닌 서민을 대표하는 이야기를 신랄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그의 작품<역사적 행렬>[도판 13]을 보면 그가 겪고 있던 사회상을 표현함으로써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민중미술은 어디까지나 양식적 차원이나 미술경향의 문제에 한정할 수 없는 현실 정치와 직결된 복합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민중의 현실모순을 인식하고 사회변혁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했다. 민중미술에서 이러한 쟁점을 구체화한 것은 현실주의 논의로, 이는 리얼리즘의 번역



[도판 12] 김호석, <역사적 행렬>, 1993

민중을 인식하며 미술관, 화랑 중 기존 미술제도를 벗어난 민주화 노동 운동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어에 기초한 것이었다. 사실 리얼리즘은 재현방식의 문제를 넘어 ‘예술은 현실을 반영해야한다’는 세계관을 내포하는 것으로 문학 및 문화이론에서 폭넓게 논의되어 온 문예사조이다. 현실주의는 1980년대 정치적 상황에 대한 현실 비판 의식을 강조한 민중미술의 태도이자 하나의 규범으로 제시되었다고 민중미술가들은 현실모순을 돌파할 정치적 주체로

3. 작품분석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물질의 권능(權能)을 맹신(盲信)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인간의 정체성 상실과 같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초래되었다.

본인 또한 그렇다. 시스템이라는 구조 안에 속해 있다가 그 틀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 스스로 바로 설 수 있을까.

본인에게 있어서 회화의 모티프인 불안은 바로 물질문명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정작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것, 혹은 자신이 서있는 곳, 아니면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루고자함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은 단지 인생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닌 내면적 자아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뜻한다. 본인의 또 다른 불안은 경쟁의식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회의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인은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착하는 본인의 모습에 불안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치가 타인과의 경쟁에 달려있는 것 같았다. 본인은 그 불안을 극복하고 싶었으나 현실의 욕망과 언제나 밀착되어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로인한 정신적 갈등은 본인이 지나온 삶의 자국이기에 현재 처한 현실적 상황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본인의 이러한 불안은 인간 내면의 존재적 욕구의 갈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19세기 이후의 상황은 어쩌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전시대처럼 정치, 경제, 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변한다기보다는 그런 현상들이 과도하게 발달되어 포화상태에 이르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사회 정치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상태이다. 하지만 개인의 여권이 신장되어 어떤 상황이든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서 바라보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와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동의 선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리는 착해야한다, 예의가 발라야한다 등 기초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집단이 개인을 통치하기에 쉬운 방향으로 교육되어왔다. 그 과정은 기본적인 학교생활인 10여 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 기간 동안 개인의 개별적인 개성은 무시되었고 공동의 선을 위한 행동을 강요받는다. 그러던 개인이 교육집단을 나서는 순간 그 개인은 생전 처음 겪는 불안에 노출되게 된다. 행동의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부터 개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강요가 시작된다. 본인은 본인이 그 지점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불안한 자유'가 주어진 시기가 본인에게는 2012, 2013년 이었다. 그래서 더욱 본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그 자유로부터 비롯된 불안이라는 감정에 이입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는 상황-에서의 예술 작품들을 분석해 보았고 이런 불안의 경향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의 불안은 이런 사회라는 단체 안에서 개인이 겪는 내면적 불안이라는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인물들은 모호한 표정과 방어적인 자세로 표현되었다.

1) 경험을 통한 사회의 반영

경험은 예술표현의 가장 확실한 도구이다³⁹⁾. 본인 또한 본인의 경험을 충



[작품 1] 이름없는 너에게, 2013, 종이에 채색, 50×90cm



[작품 2] 얼굴없는 너에게, 2013, 종이에 채색,
112×145cm

39)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제언 옮김, 책세상, p14

실히 작업에 적용시키는데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닌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본인은 작업을 진행할 때 처음 떠올린 이미지에서 파생되는 이미지들의 대부분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결과다. 따라서 인식하지 않아도 사회라는 상황 안에 속해 있는 존재로서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작업 중 <보이지 않는 너에게>[작품1]와 <이름 없는 너에게>[작품2]라는 작품은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전적인 물음에 대한 표현이었다. 학교를 나와서 미래에 대한 온전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았을 때 본인은 타인과 비교되는 생활 속에서, 또 사회가 정해 놓은 기준안에서 자아의 부재를 경험하였다. 주체 없는 생활을 영위하게 될까봐 겁이 났지만 사회의 기준에서 완벽히 고립되기에도 두려움이 컸다. 이런 불안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나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들은 본인 존재에 대한 근원적 고찰을 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

아이가 아이였을 때 질문의 연속이었다
왜 나는 나이고 네가 아닐까?
왜 난 여기에 있고
저기에는 없을까?
시간은 언제 시작되었고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태양 아래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모였다 흩어지는 구름조각은 아닐까?
악마는 존재하는지, 악마인 사람이 정말 있는 것인지,
내가 내가 되기 전에는 대체 무엇이였을까?
지금의 나는 어떻게 나일까?
과거엔 존재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는
다만 나일 뿐인데 그것이 나일 수 있을까.. 40)

빔 벤더스(Wim Wenders, 1945~)⁴¹⁾의 영화 ‘베를린천사의 시⁴²⁾’에는 <아이가 아이였을 때>라는 제목의 페테한드케(Peter Handke, 1942~)⁴³⁾의 시가 나온다. 영화상에서 이 시는 아이들만이 던질 수 있을 법한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간단하지만 존재에 대한 진지한 물음으로써 본인은 지극히 불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물음을 통해 존재를 살피게 되었다. 그리고 수동적인 삶을 지나 진정한 자아를 찾는 불안의 기로에서 본인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기틀 안에서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었고 존재하는 불안과 존재하지 않는 불안속의 고민은 사라질듯 한 모습의 인간의 형태나 확실하지 않은 표정, 그리고 어두운 색채로 표현하였다. 또한 자아나 고유성이 아닌 이름과 얼굴로만 인식되는 현대인의 특징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또 같은 시기

40) 페터한트케, <아이가 아이였을때>

41) 빔벤더스 (Wim Wenders, 1945~) 독일의 영화감독.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문화에 젖어 든 독일인의 정체성에 대한 영화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페널티킥을 맞은 골키퍼의 불안》으로 데뷔해 호평을 받았다. 《미국인 친구》로 ‘뉴 저먼 시네마’와 할리우드 영화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베를린 천사의 시》로 칸영화제 감독상과 몬트리올 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했다. (두산백과)

42) 베를린 천사의 시(Der Himmel Ueber Berlin, Wings Of Desire, 1987) 빔 벤더스가 페터 한트케와 함께 시나리오를 쓴 판타지 「베를린 천사의 시」는 양분된 베를린과 홀로코스트의 결과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 아름다움을 포괄하며,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천사 다미엘(브루노 간츠)을 통해 인간의 세계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수호천사들의 세계라는 두 세계 사이의 선택을 시도한다. 아련하고 우수 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되는 이 영화는 개봉되자마자 평단의 호평과 칸 영화제의 감독상을 비롯하여 많은 영화제에서 영예를 안았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느린 심장박동 같은 속도는 스토리의 분위기에 핵심적인 요소다. 영화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왜 나는 당신이 아니고 나일까? 왜 나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걸까? 시간은 언제 끝나고 공간은 어디서 끝날까?” 같은 아이들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곰곰이 검토한다. 그 느린 속도감은 우선 순위가 분명해지고 인생이 더욱 희망적이 되는 세계 속으로 관객을 이끌고 간다. 속편 「멀고도 가까운」(1989)을 탄생시켰고, 할리우드에서는 맥 라이언과 니콜라스 케이지가 출연한 「시티 오브 엔젤」(1998)이라는 도식적인 로맨틱 드라마로 만들어졌다.(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 2005. 마로니에북스)

43) 페테한드케 (Peter Handke, 1942~) 독일의 희곡작가. 문학의 정치화를 주장하였는데 기존의 문학, 예술, 정치를 비판했다. 그는 언어를 통해 계몽하려 했다. 1966년 발표된 《관객모독》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두산백과)



[작품 3] 서른 살의 봄, 2013, 장지에 채색, 130×162cm,



[작품 4] 평화, 2013, 종이에 채색, 60×7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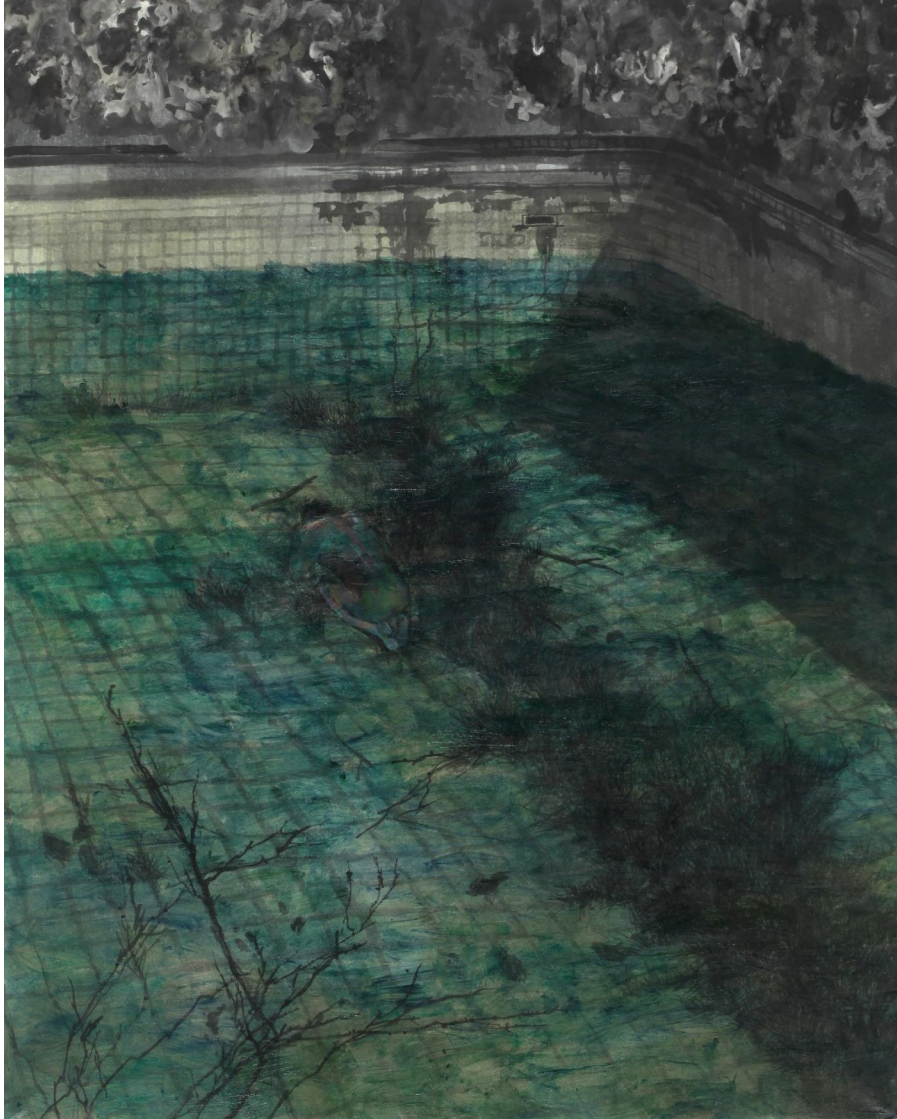
에 그려진 비슷한 맥락 안에 있는 그림으로는 <서른 살의 봄>[작품3]이라는 작품이 있다. 뚜렷한 의식 없이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집단을 표현한 작품으로 본인 또한 저 무리 안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앞을 알 수 없는 숲과 늪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은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본인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며 앞으로 가고 있지만 앞을 보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 아래로 향한 시선은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이며 동시에 자의가 아닌 타의가 기준이 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또한 <평화>[작품 4]는 세상을 향해 날아가야 할 ‘새’라는 상징물에 감정을 대입시켜 표현한 것으로 ‘구속’에 대한 저항없이 그 안에서 다시, 스스로 구속되어 버리는 모습을 통한 반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타인의 눈으로 보는 모습은 분명 잘못되어있지만 정작 자신은 구속에 길들여져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지못하는 상태를 그렸다. 이렇게 본인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며 겪는 다양한 생활상 중에 자신과의 거리를 탐색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작품 속에서 논하고 있다.

2) 표정과 자세를 통한 인물 표현

불안은 고독, 공포, 두려움, 초조함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감정으로 이러한 감정은 인간을 움츠러들게 한다. 불안이란 감정을 부정적이라고 정의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의 매개가 되는 감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을 통해 삶은 막연히 새어버린다’ 라는 오든(W. H. Auden, 1907~1973)⁴⁴⁾의 시처럼 불

44) 오든(W. H. Auden, 1907~1973) 영국의 시인이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 직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후 시민권을 얻는다. T. S. 엘리엇이 대표하는 1920년대의 정신에 받기



[작품 5] 나의 자리, 2013, 장지에 채색, 162×130cm

를 들어 마르크시즘의 문제를 시 가운데 넣어서 데이루이스와 스티븐 스펀더 등과 함께 신폴을 영국 시단에 일으킨다. 이른바 '오든 그룹'의 지도적 존재이며 임상(臨床醫)와 같이 병든 사회를 정신분석과 사회의식을 합친 수법으로 파헤쳤다. 최근에는 앵그리칸 종교에 기울어 인간존재를 '사랑'의 면에서 고찰하는 것과 같은 시를 쓰며, <전시집(全詩集)> 기타 많은 작품이 있다.



[도판 13] 뭉크, <흐느끼는 누드>, 1914



[도판 14] 케테 콜비츠, <죽은 아이를 안은 여인>, 1903

안의 감정이 확장되면 삶 전반의 감정을 점차 지배해 허무하고 우울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

본인의 작업에 나타나는 인물의 자세 또한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다. 의욕적이고 진취적으로 삶을 바꾸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현실에 순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순응하는 자신을 답답해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더 이상의 현실과의 타협도 원하지 않는 방어기제가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웅크린 자세는 삶의 불안과 고독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왔으며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했던 뭉크의 <흐느끼는 누드>[도판 15]와 케테 콜비츠의 작품 <죽은 아이를 안은 여인>[도판 16]에서도 이런 자세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나의 자리>[작품5]에서 보이는 인물은 바닥을 향해 웅크리고 있으며 ‘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현실의 공간과 나뉜 또 다른 공간에 위치한다. 그 공간은 불안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표현되며 하나의 막을 형성함으로써 자아를 보호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사르트르의 희곡 ‘달한 방’에서 언급된 타자와의 거리에서 오는 불안을 차단하려는 시도와 같



[작품 6] 깊지않은 물, 2013, 종이에 채색, 130×162cm



[작품 7] 말없는 대화, 2013, 종이에 채색, 89.5×169cm

은 맥락이다. 또한 그림에 사용된 폐수영장이라는 장소를 통해 목적을 잃은 공간과 삶의 목적을 잃은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기도 하다.

<깊지 않은 물>과 <말없는 대화>에서도 물이라는 매개는 현실과의 구분을 위한 매개로 사용된다. 물에 반쯤 잠긴 모습은 현실이라는 세계에도, 물로 대변되는 다른 공간에도 속하지 않는 인간을 의미하며 소속감이라는 것에 한 화두를 던진다. 단순히 물에 잠긴 것이 아닌 자신의 소속을 정하지 못하는 불안감에서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깊지 않은 물>[작품 6]에서는 앉지도 서지도 않은 인간의 자세를 통하여 공간, 소속감의 표현과 더불어 어정쩡한 모습을 통한 불안함을 내비치고 있다. <말없는 대화>[작품 7]에서는 같은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사람들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하고 자신과 다른 타인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경험없는 공감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 어쩌면 더 압담하게도 작품 속 두 사람의 처지는 같지만 같은 처지라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존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이에게는 말이 필요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다.

Ⅲ. 결론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항상 쉽없이 변해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떤 것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시대의 시류와는 거꾸로 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뿌리를 찾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찾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성찰이 인간을 좀 더 뚜렷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본인을 스치는 많은 감정 중에서 잔상이 오래도록 남는 불안이란 감정의 근원을 찾아 밝히고 그 근원에 대한 물음 속에 본인 자신에 대한 자아의 성찰살피는 것이 존재의 뿌리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작업은 자유를 통해 가지게 된 선택 앞에서,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가져오는 감정인 불안을 기반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불안이란 감정이 형상화된 작품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그 불안이 야기될 수 있었던 시대상황과 함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불안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한다고 말한다. '불안에 대한 용기를 갖는 사람은 자신을 대면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불안'에 대면하기 위해서는 비존재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자기 긍정을 이끌어 내야한다. 여기서 긍정적인 방향을 예술창조와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면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사람이 창조의 과정에서 몰입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무'와 불안 등의 비존재를 극복하여 '유'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불안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일깨우고 자아 존재를 드러내고자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지 않았는지 추측해본다.

앞서 자유의 개념과 불안의 의미, 또 시대에 따른 예술의 표현을 살펴보았

다. 각 개념과 의의는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에 따라서 변하지만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상황과 본인의 위치를 탐색해 볼 수 있었다. 본인도 앞으로의 작업을 통해 단순히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인간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인 불안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통해 좀 더 다양하고 확장된 감정을 통해 사회현실을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나은 작업을 하도록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 민동근 『윤리학』 제문제 역, 형설출판사 1982,
미국정신분석학회, 『정신분석 용어사전』, 이재훈 외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반용기 『리얼리즘 문학과 다큐멘터리 사진 연구』, 경북대출판부, 1998
변광배 『존재와무: 자유를 위한 실존적 탐색』, 살림출판사, 2005
성완경, 『민중미술, 모더니즘, 시각문화』, 열화당,
이상현, 『지성사로 본 세계사』, 집문당, 1998,
홍석기, 『인상주의-모더니티의 정치학』, 생각의 나무, 2010.

<국내 번역본>

- A.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 염무웅·반성완 역, 창작과 비평사, 1999
번즈, E. M.& 러너. R. , 『서양문명의 역사 III』, 손세호 역, 소나무, 1996
F. 짐머만, 『실존철학』, 이기상 옮김, 서광사, 1987
J.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제언 옮김, 책세상, 2003
J. P.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옮김, 문예출판사, 2013
오토프리트 회폐, 임홍빈 역 『윤리학사전』 예경출판사, 1998
하르트만, 『윤리학』, 하기락 역, 형설출판사, 1983

ABSTRACT

Studies on the expression of freedom and anxiety

- Focusing on my work-

Kim Sunyoung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Modern society, have come to a convenient life and moistened by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echnology. However, in the present study, I thought in the spiritual environment of modern people living in a convenient modern life society, and does not reach to this.

In addition, it was thought in modern society, freedom to choose anything to be able to do anything becomes to cause loss of inner presence and anxiety of the individual.

Therefore, the theme of the anxiety of modern man feel divergence sense of mental environment and human society, and the process proceeds to master's claim before in 2013, and based on that work, what are those and human freedom , by acquiring freedom, through this paper, you are trying to study the fear of responsibility and choice obtained incidentally.

Because I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standards" in society to pursue the material civilization, and without looking back about myself compelled, rather than their own, modern people, lived to be placed in

society source of the value of all .

As a result, many people, is connected to the question of uncertainty of the existence of do not know myself whether the presence of what makes the work, in life and work of the person, their presence, or that they want to now further I was wondering about value.

And I, based on the idea of disturbing errors in the process of responsibility and choice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freedom that is present in the base of the anxiety and uncertainty of the present, and through the freedom to to output the results I think Te, and let's look at the expression of anxiety and freedom in contemporary art.

Therefore, in this paper, anxiety anxiety to assume that it is the anxiety through the absence of ego that modern people are facing, the recognition of existence, resulting from the freedom obtained in the society that a sudden change in the 20th century I think I'll try to theoretical analysis.

In addition, through intensive discussion how was expressed in expressionism, realism, folk art of South Korea have guessed how feelings of anxiety and its freedom is what has been expressed in the art, analysis through facts and historical results, aims to study what represents the inner world presence anxiety of the principal, which is formed in a free-living current through the paintings, expressed the to see and explore the works of art out dissolved in the psychology of anxiety by placing, on the basis of this, you are trying to seek the direction of future work.